

작품 내용

제 목	나를 믿게 하는 출처
내 용	"심사위원님께서 그 자료는 어디에서 찾았는지 물어보시면 어떻게 대답할 거니?" 발표를 며칠 앞둔 저녁이었다. 나는 어린이 과학발명대회 발표 연습을 하며 엄마 앞에 서 있었다. 발표 자료를 넘기며 자신 있게 설명하던 나는 엄마의 갑작스러운 질문에 잠시 말을 멈췄다. "인터넷에서 찾아봤어요." 나의 대답은 짧았다. 하지만 엄마는 고개를 살짝 저으며 다시 물으셨다. "인터넷 어디에서? 누가 쓴 자료인데? 논문이야, 연구보고서야, 신문기사야?" 순간 아무 말도 할 수 없었다. 분명 여러 자료를 찾아보며 아이디어를 정리했지만, 어떤 사이트에서 봤는지, 누가 작성했는지, 어떤 자료를 참고했는지는 정확히 기억하지 못했다. 내가 준비한 발명은 시선유도봉을 스티로폼으로 제작하고 내부에 충격 감지센서를 넣어 IoT 기술로 관리하는 아이디어였다. 차량 충돌로 시선유도봉이 파손되면 센서가 즉시 관리자에게 신호를 보내 빠르게 교체하거나 보수할 수 있도록 하는 것이 핵심이었다. 발표 자료에는 현재 시선유도봉의 관리 실태와 문제점, 개선방안, 그리고 기대효과를 정리해 두었다. 예선을 통과한 뒤에는 직접 모형도 만들고 그림도 그리며 발표 준비에 많은 시간을 쏟았다. 나는 발표 내용만 충분히 외우면 된다고 생각했다. 하지만 엄마의 생각은 달랐다. "심사위원들은 네가 얼마나 잘 외웠는지를 보는 것이 아니라, 왜 그렇게 생각했는지, 그 근거가 무엇인지를 확인하고 싶어 하실 거야." 엄마는 이어서 말씀하셨다. "'인터넷에서 찾아봤습니다.'라는 말만으로는 부족해. '한국도로교통 관련 자료를 찾아보았고, 어떤 논문의 몇 페이지와 어떤 연구보고서, 어떤 신문 기사를 참고했습니다.'라고 자신 있게 말할 수 있어야 해. 그래야 네 발표를 믿을 수 있지." 그 말을 듣는 순간 머리를 한 대 맞은 것 같은 기분이 들었다. 나는 자료를 읽기만 했지, 그 자료가 얼마나 믿을 만한 것인지, 누가 작성했는지, 어디에서 나온 내용인지는 제대로 확인하지 않았던 것이다. 그날 이후 나는 발표 연습보다 먼저 참고자료를 다시 찾기 시작했다. 인터넷 검색 기록을 하나씩 살펴보고, 정부기관 자료인지, 연구기관에서 발행한 보고서인지, 학술논문인지 확인했다. 신문기사는 언제 보도된 기사인지, 작성한 언론사는 어디인지도 다시 확인했다. 발표 자료에 사용한 사진과 그림도 출처를 하나씩 정리했다. 처음에는 생각보다 시간이 오래 걸렸다. 하지만 자료를 다시 읽으며 오히려 발표 내용을 더 깊이 이해할 수 있었다. 막연하게 알고 있던 사실들이 왜 그런지 근거를 설명할 수 있게 되었고, 질문을 받아도 자신 있게 답할 수 있을 것 같은 자신감이 생겼다.

발표 당일, 무대에 올라 준비한 내용을 차분하게 설명했다. 긴장했지만 연습했던 대로 발표를 이어 갔다. 발표가 끝난 뒤 심사위원들의 질문이 시작되었다.

그 중 한 분이 내게 물으셨다.

"현재 시선유도봉의 관리 실태는 어떤 자료를 근거로 조사했나요?"

순간 엄마와 연습했던 장면이 떠올랐다.

나는 당황하지 않고 준비한 내용을 차근차근 말씀드렸다.

"심사위원님, 해당 내용은 정부기관에서 제공하는 자료와 관련 연구보고서, 그리고 IoT 기술 적용 사례를 다룬 신문 기사를 참고하여 조사했습니다. 또한 연구보고서와 논문 내용을 함께 확인하여 현재 관리 실태와 개선방안을 정리했습니다."

답변을 마친 뒤 심사위원께서는 고개를 끄덕여 주셨다. 그 짧은 순간이었지만, 발표를 준비하며 가장 잘한 일이 무엇인지 알 수 있었다. 아이디어를 만든 것만큼이나 그 아이디어의 근거를 확인한 과정이 중요했던 것이다.

며칠 뒤 나는 좋은 결과를 받았다. 상을 받았다는 기쁨도 컸지만, 더 오래 기억에 남은 것은 발표를 준비하며 배운 자세였다.

집으로 돌아오는 길에 엄마는 웃으며 말씀하셨다.

"오늘 심사위원 질문이 엄마가 했던 질문이랑 비슷했지?"

나는 웃으며 고개를 끄덕였다.

"엄마 말대로 준비하지 않았으면 대답 못 했을 것 같아요."

며칠이 지나 학교에서 저작권과 올바른 자료 활용에 관한 교육을 들으며 나는 또 한 번 놀랐다. 엄마가 발표 연습 때 강조했던 내용이 바로 저작권과 연결되어 있었기 때문이다. 저작권은 단순히 다른 사람의 글을 함부로 복사하지 않는 것만을 의미하지 않았다. 자료를 사용할 때 작성자를 확인하고, 출처를 밝히며, 신뢰할 수 있는 자료를 선택하는 태도 역시 저작권을 존중하는 중요한 실천이라는 사실을 알게 되었다. 출처를 남긴다는 것은 단순히 발표를 잘하기 위한 기술이 아니라, 다른 사람의 연구와 노력, 그리고 창작을 존중하는 기본적인 약속이었다. 그 이후로 나는 자료를 찾을 때 가장 먼저 출처를 확인하는 습관이 생겼다. 글을 읽으면 누가 작성했는지, 언제 작성되었는지, 정부기관인지 연구기관인지부터 살펴본다. 사진이나 그림을 사용할 때도 이용 가능한 자료인지 확인하고 반드시 출처를 기록한다. 조금 번거롭지만, 그 과정 덕분에 내가 작성하는 글과 발표는 훨씬 더 신뢰를 얻을 수 있다는 것을 느끼게 되었다. 돌이켜 보면 그날 엄마가 던진 질문은 단순한 발표 연습이 아니었다. 그것은 '사실을 말하는 사람은 반드시 근거를 제시할 수 있어야 한다'는 중요한 가르침이었다. 또한 누군가의 자료를 사용할 때는 그 사람의 이름과 노력을 함께 기억해야 한다는 삶의 태도를 알려 준 소중한 시간이었다. 지금도 발표를 준비할 때면 가장 먼저 참고자료를 정리한다. 그리고 마음속으로 한 번 더 다짐한다.

좋은 발표는 화려한 말솜씨에서 시작되는 것이 아니라, 믿을 수 있는 자료를 바탕으로 정직하게 출처를 밝히는 태도에서 시작된다는 것을.

그날 엄마의 한마디는 나에게 발표 요령을 넘어 저작권의 가치를 가르쳐 준 가장 뜻깊은 수업이었다.